

朝鮮半島文化の二重組織論を越えて

著者	嶋 陸奥彦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218-223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35

朝鮮半島文化の二重組織論を越えて

嶋陸奥彦（東北大学）

博物館における展示は、対象となる文化を展示しつつ、同時に展示する側の見方をも展示する。しかし今回の新しい展示を以前のそれと対比するとき、その違いの顕著さをあらためて実感する。これはそれぞれの展示方針によるものであるが、その背後に、前回の展示と今回のあいだで展開した、朝鮮半島文化にたいする見方の違い／変化に対応する部分が少なからずあると思われる。

前回の展示の基本方針が、「現代の韓国の精神生活における二つの基本的な柱組みと なっている『民間信仰』と『儒教』の二つを大きな柱とし．．．（中略）韓国の文化の 構造を示す」というものだったことは、朝倉氏の紹介をはじめとして、本シンポジウム でも何度かふれられたとおりである。前回の展示が組み立てられた1980年代初等の 研究状況については、次の二つのことに触れておこう。

前回の展示の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だった祖父江孝男氏は、それに先立つ1980～81年度に「韓国の伝統文化とその変容」という共同研究を実施していた。これは民博における韓国関係の最初の共同研究だった。そのころは、日本の人類学における韓国研究が本格的に再開されて10年足らずという時期で、共同研究の目的も“従来の人類学的研究についての文献目録を作製・整理し、今後の研究方向をみいだしてゆくこと”^{*1}とあるように、研究の現状を把握する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った。参加者たちの多く（筆者もふくめて）の研究は、韓国文化の構造的特徴を明らかにする作業に主として向けられていた。

他方、戦後の日本における朝鮮半島研究を回顧した伊藤亜人氏は、研究領域と内容において、巫俗や民間信仰に集中する民族学的研究と、家族・親族に集中する社会人類学的研究に大別されると指摘したうえで、“これは恰も、秋葉隆がかつて指摘した‘朝鮮社会・文化の二重構造’を反映しているかのよう”だと述べている^{*2}。

これらに照らしてみると、前回の展示の基本方針は、まさに当時の日本における研究状況を色濃く反映させたものだったといえる。そこに展示された二重性とは、民間信仰と儒教という精神生活における対照と、一般常民と上流両班という社会階層の面での対照が重なり合ったものだった。これは確かに秋葉の提起した二重的なモデルに対応しているようにみえる。

これに対して、今回の展示の特徴は、民間信仰と儒教に加えて、道教、仏教、キリスト教などに関するもの、あるいは現代の大衆文化などをも展示することによって、現代

朝鮮半島文化의 二重組織論을 넘어서

嶋陸奧彦 (東北大學)

박물관에 있어 전시는 대상이 되는 문화를 전시함과 동시에 전시하는 측의 견해도 전시한다. 그러나 이번의 새로운 전시를 이전의 전시와 비교할 때, 그 차이의 현저함을 분명하게 실감한다. 그것은 각각의 전시 방침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지난회의 전시와 이번의 전시 사이에서 전개된 한반도 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지난회 전시의 기본방침이 「현대의 한국의 정신생활에 있어 두 개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있는 『민간신앙』과 『유교』의 두 개의 큰 기둥으로.....(중략) 한국의 문화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말한 것은 朝倉의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본 심포지움에서도 몇 번이고 언급되었던 대로이다. 지난회의 전시가 구성된 1980년대초의 연구 상황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지난회 전시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祖父江孝男는 지난회 전시에 앞서 1980-81년도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그 변용」이라는 공동연구를 실시해왔다. 그것은 민족박물관에 있어 한국관계의 최초의 공동연구였다. 그 무렵은 일본의 인류학에 있어 한국연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지 10여 년이 채 안된 시기로서 공동연구의 목적도 “종래의 인류학적 연구에 대한 문헌 목록을 제작·정리하고, 현재 이후의 연구 방향을 발견해 가는 것”인 것처럼, 연구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필자를 포함해서)의 많은 연구는 한국 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주로 할당되었다.

한편, 전후의 일본에 있어 한반도 연구를 회고했던 伊藤亞人は 연구 영역과 내용에 있어, 무속이나 민간신앙에 집중하는 민족학 연구와 가족·친족에 집중하는 사회 인류학적 연구로 대별된다고 지적한 다음 “이것은 마치 秋葉隆가 언젠가 지적했던 「조선사회·문화의 이중구조」를 반영하고 있을까와 같은”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の韓国文化の多様性を提示しているところにある。これは観るものに対して同時代的関心を起こさせるだろう。また基層文化のうえに様々な要素が歴史の中で前後しながら積み重なってきたという歴史的重層性をもう一つの軸としていることは、静的で構造的な展示を乗り越えようとする試み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展示の仕方がこのように大きく変わった背景にはいくつかの要因が考えられる。まず第一に、韓国社会自体の急速な変化、とりわけ都市化と大衆文化の展開、そして宗教面でいえばキリスト教の大幅な浸透である。このことが韓国文化にたいする関心を多様化させるとともに、その歴史的変化にたいする感覚を要求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また民博全体として、いわゆる伝統文化だけでなく現代文化をも展示するという方針を採択したことも、今回の展示の方向に影響を与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全体として、今回の展示がはるかに多面的にな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

だが基層文化、道教、仏教、儒教、キリスト教などの要素は、単に重層的に付加されてきただけではない。それらは朝鮮半島に受容されて以来、朝鮮半島の文化の他の部分と相互作用しながらさらに歴史的に展開してきたのであり、同時代文化として現代社会にみられるのはその結果なのだという側面をもう一度思い出す必要がある。例えば韓国文化の両班化の諸相を分析した朝倉氏の研究*1は、前回の展示で二つの柱の一つとされた儒教・両班的文化が、実は静止した伝統などではなく、現代文化の動態の重要な一部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この考え方にたてば、秋葉が二重的なモデルでとらえようとしたときの朝鮮文化と、70年代以降に研究が再開されたときに私たちが見た韓国文化とは、同じものではなかったはずである。対象としての朝鮮半島文化の時代的变化の角度から、植民地時代の問題を見直すことが必要である。また全京秀氏が指摘するとおり、朝鮮戦争と分断が及ぼした影響にも注意を向ける必要がある。

対象を見る視線の角度からは、80年代までの研究と、それを踏まえた前回の展示が秋葉の二重的モデルを反映しているかのようだったとすれば、それは当時の研究者の視角が先達である秋葉のモデルにとらわれていた、あるいは見方が秋葉の時代から変わ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のだろうか？ しかし秋葉自身は二重組織あるいはデュアリズムの概念を、家庭のなかや村の中に併存して相互補完的に全体を構成している現象を説明するモデルとして用いたのであって、決して博物館の別の部分に展示されるような別々の現象があると主張していたようには見えない。

モデル自体が、秋葉のものとは少し違っているという角度からみれば、対象文化のなかに、そのような見方を刺激するような現象があるということなのだろうか？ 両班化をめぐる現象を一方におき、農楽や仮面劇がもつ対抗文化の役割を他方においてみるな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전시의 기본방침은 확실히 당시의 일본에 있어서의 연구상황을 농도 깊게 반영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시된 이중성이라는 것은 민간신앙과 유교라는 정신생활에 있어서의 대조와 일반서민과 상류양반이라고 하는 사회계층의 면에서의 대조가 중첩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秋葉隆가 제기했던 이중적인 모델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에 대해, 이번 전시의 특징은 민간신앙과 유교에 덧붙여 도교, 불교, 크리스토포 등과 관련된 것, 혹은 현대의 대중 문화 등도 전시함으로써 현대의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측에 대해 동시대적인 관심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역사 속에서 기층문화 위에 다양한 요소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중첩되어 왔다는 역사적 중층성을 다시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적이고 구조적인 전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시 방법이 이렇게 크게 변한 배경에는 몇 개의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첫째로, 한국사회 자체의 급속한 변화, 특히 도시화와 대중문화의 전개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크리스토포의 광범위한 전파이다. 그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그 역사적 변화에 대한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민족박물관 전체로서 볼 때,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화도 전시한다는 방침을 채택한 것도, 이번의 전시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이번의 전시가 훨씬 다면적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층문화, 도교, 불교, 유교, 크리스토포 등의 요소는 단순히 중층적으로 부가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반도에서 수용된 이후, 조선반도의 문화의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져 온 것이고, 동시대의 문화로서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결과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의 양반화의 여러 가지 양상을 분석했던 朝倉의 연구는 지난해 전시에서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유교·양반 문화가 사실은 정지된 전통이 아니라 현대문화의 중요한 동태중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더듬어 보면, 秋葉隆이 이중적인 모델로써 말하고자 했

らば、自文化をめぐるディスコースの中にそのような可能性を認めることもできそうである。

今回の展示換えとシンポジウムを期に、さらなる検討課題が現れたようである。

던 때의 조선문화와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재개되었을 때의 우리들이 본 한국문화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상으로서의 조선반도 문화의 시대적 변화라는 각도에서 식민지 시대의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全京秀가 지적한 대로 조선전쟁과 분단이 미쳤던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80년대까지의 연구와 그것을 토대로 한 지난해 전시가 秋葉隆의 이중적 모델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형식이었다면, 그것은 당시 연구자의 시각이 선배인 秋葉隆의 모델에 맞춰져 있다, 혹은 사고방식이 秋葉隆의 시대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러나 秋葉隆 자신은 이중조직 혹은 이원론(dualism)의 개념을 가정 내에 그리고 마을 내에 병존하여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써 사용했던 것이지, 결코 박물관의 다른 부분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델 자체가 秋葉隆의 모델과는 약간 다르다는 각도에서 본다면, 대상문화 가운데 그와 같은 견해를 자극하는 듯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 양반화를 둘러싼 현상을 한쪽에 두고, 농악이나 가면극이 갖는 대항문화의 역할을 다른 한편에 두고 고찰해 본다면, 自文化를 둘러싼 언설 가운데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의 전시교체와 심포지움을 기회로 새로이 검토과제가 나타난 것 같다.